

교회 문(門)에 관한 신학적 개념

이 정 구

성공회대학교

〈요 약〉

어느 종교건축물이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접하는 문을 통해 그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된다.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해 문은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교회 문은 성곽 속의 구분이며, 이 둘 사이의 소통이며, 외부와 내부 사이의 문지방과도 같은 것이다. 중세시기에 문맹인과 민중 신자들은 교회 문 위 팀파눔(Tympanum)에 조각된 최후의 심판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품었을 것이다. 현대교회건축에서 문을 디자인할 때, 서양 중세 고딕교회와 같은 도상학적 전통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교회론(敎會論)에 따라 교회 문의 크기와 재료, 색깔을 규정짓는 것은 적절할 수 있지만, 한편 교회 본당건물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현대교회 문의 개념은 서양 중세 교회문의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의 개념, 새 신자들을 환영하는 ‘큰 문’이라는 개념, 교회내부 공간에 설치된 ‘영광의 문, 승리의 문’이라는 개념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극복하는 복음에 대한 ‘응답의 문’이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측은지심의 문’을 의미한다.

핵심 주제어: 교회 문, 응답, 측은지심, 종교 이해, 종교 교육

I. 문(門)

인간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장소와 공간에 경계를 표시하고 타자(사람,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담을 세우고 그 장소와 공간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경계 담이나 건축물에 문을 달았다.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장소와 건물에 담과 문이라는 장치를 해왔다. 문은 사람과 동물, 그리고 필

요한 물건이 그 장소와 공간을 출입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문을 통해 햇빛이 통하고 공기와 냄새가 순환하며¹⁾, 문의 열린 틈새로 밖과 안을 응시하기도 하고 밖의 사람과 말을 소통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문 앞에서 약속을 하고 문을 통해 탈출을 하며, 문을 통해 안으로 인도되지만 반면에 인도되는 강요도 받는다. 또한 문의 장식을 통해 다양한 인식을 하는데 현대의 문은 건물과 무관한 독립된 매체로서 광고와 교육적인 기능까지 제공한다.

각 종교는 전통적으로 저 마다의 독특한 문의 형태를 구축해 왔다. 어느 종교건축물이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출입하게 되는 문의 체험을 통해 그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된다.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해 비단 교회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종교건축물에서 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기독교 교회건축물에서 특별히 문에 관한 도상학적 의미를 밝혀보는 것이다. 교회 문은 교회 터의 외부와의 경계인 교회 담에 설치한 경계 출입문과 교회 건물에 설치한 본당 출입문, 그리고 전례(예전)와 기타 필요에 의해 내부공간을 구획한 문과 벽체에 있는 창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교회 터에서 교회본당 내부로 진입하도록 장치된 출입문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도상적(圖像的)인 의미를 살펴보고 현대교회의 문의 개념과 형태는 교회건축과 관련된 선교 및 교회론(教會論)과 더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II. 장소성

종교현상학자 엘리아데(Eliade, Mircea, 1907-1986)의 ‘세계의 중심’은 특정한 장소와 공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아 ‘우주 축(axis mundi)’ 혹은 ‘우주의 기둥(universalis columna)’이라는 거룩한 상징이 된다.²⁾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방향성은 시작된다. 기독교 신자들은 에덴동산인 창조주 세계에로의 회귀 욕망을 갖고 교회를 구축한다. 따라서 교회공간에서 동쪽은 낙원이며 이곳에 제단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행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주기적인 회귀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신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처소이며 모세의 떨기나무 자리와 같은 거룩한 장소였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거하는 바티칸을 우주의 축으로 삼으며, 유대교는 예루살렘을, 이슬람은 메카를 그 축으로 삼는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중심이다.³⁾ 중세기의 지도는

1) window는 ‘wind’에서 파생되었다는 설도 있다.

2) M. Eliade, Willard Trask (trans),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9) 참조.

3) “세계는 인간의 눈동자와 같아서 흰자위는 대양이며 가운데 검은 수정체는 세상이다. 그 안의 동공은 예루살렘이며, 그 동공 안에 있는 이미지가 바로 사원이다.”: William Lethaby, *Architecture Mysticism*

예루살렘이 항상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예배 장소와 공간에 대해 특별히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왔다. 이들이 예배를 위한 피신처로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을 선택한 것에는 ‘죽은 자’들을 이상화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⁵⁾ 고대 영웅 숭배와 기독교의 순교자 숭배와의 유사성도 발견된다. 죽은 자를 영웅시하는 관습과 집안 조상을 사당에 모시는 관습, 죽은 자를 향해 드리는 종교제의와 죽은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각 종교들이 간직하고 있는 죽음의식과 무덤⁶⁾, 이 모든 것은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와의 관계성을 구분지우는 의식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순교자들에 대한 의식과 기념은 각별하다. 순교자 무덤 위에 제단을 세우고 교회를 축조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장소성이기도 했다. 무덤은 기독교 부활신앙과도 밀접하다. 묘지는 죽은 자들이 잠들어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으며 이들의 영혼을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 ‘교회의 품’ 이기도 했다.⁷⁾

Ⅲ. 문의 기능

건물 앞면(facade)을 사람의 얼굴로 상징할 때 대문은 입이며 창은 눈이다.⁸⁾ 이것은 비단 서양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건물을 이렇게 공통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상징이며, 지각심리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⁹⁾ 원시시대에는 집이면서 동시에 사원이던 자궁과 같은 집은 점차 거주공간과 사원으로 분리되었다. 고대부터 각 나라, 지역, 종교마다 건물의 문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상징하는 문 장식을 한다. 대체로 고대 문에는 태양을 상징하거나 지킴이 상을 조각했는데, 갈릴리에 있는 시리아인 무덤의 문 위 상인방에 있는 성스러운 금빛 포도덩굴과 십자가 문양은 비잔틴 교회장식에 까지 이어진다.¹⁰⁾

& Myth (Broughton, Gifford: Solos Press, 1994), p.78.

4) Mircea Eliade,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박규태 옮김, 『상징, 신성, 예술』(서울: 서광사, 1991), 194 쪽.

5) Peter Brown, *The Cult of the Saints: Its Rise and Function in Latin Christian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5.

6) 고대인들은 죽음과 친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염려해서 묘지를 숭배했다. 한편 죽은 자들은 불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를 오염시키거나 도시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묘지를 도시 밖에 두도록 하였다; Philippe Aries, 고선일 옮김, 『죽음 앞의 인간』(서울: 새물결, 2004), 84 쪽.

7) 위의 책, p.105.

8) Steen Eiler, *Rasmussen, Experiencing Archite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p.39.

9) 원시인들은 그들의 주거공간인 동굴을 어머니의 자궁에 비유하고 문을 질로 생각했다. 점차 집이 지상으로 축조되면서 대문은 입이 되었고 벽체의 좌우 창은 두 개의 눈이었다. 그 눈을 통해 집안에서 밖을 응시하고 관찰 하였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자료는 Olivier Marc, *Psychology of the House* (London: Thames and Hudson, 1977), pp. 12-13.

히브리 사람들은 회당만이 아니라 특정한 도시 자체를 지성소로 간주하기도 했다.¹¹⁾ 구약의 열왕기상 7장을 보면 솔로몬이 궁을 건축하면서 문과 문설주를 네모꼴로 제작하고(5절) 본전 현관에 기둥을 세워(21절) 온갖 장식을 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로마시를 지성소로 삼고 문을 세워 장식한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대제의 개선문을 그 출입문으로 삼은 것과 유사하다. 특히 로마의 디도의 문(The Arch of Titus)¹²⁾은 솔로몬이 들어설 때의 위엄을 나타낸 황제 아치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형태의 문들은 유럽 곳곳에 축조되었는데 파리의 개선문도 그 한 예이다. 로마제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도시에 개선문을 세우고 로마시민을 구한 듯이 이 문을 구원의 문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문의 의미가 교회로 자연스럽게 전이되어 교회 문을 세우고 이와 유사한 의미를 부여했다.

로마 바실리카(basilica) 건축형태에서 시작한 초대교회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를 오늘날에도 교회평면의 기본구성으로 삼고 있다. 모든 종교마다 사원건축에 있어서 그들만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기독교 교회건축의 방향은 유대사원 건축방향에 따라서 초기에는 제대가 서쪽을 향해 있었는데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대제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을 향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날까지 제단은 동편에 정착하게 되었다.¹³⁾ 그 후 서방교회는 정방형의 돔(dome)이 있는 비잔틴(Byzantine)식 구조를 전례의 집전에 적절하도록 장방형의 로마네스크(Romanesque)와 고딕(Gothic)형태로 변경하여 발전시켜왔다. 서방교회의 출입문은 제대가 있는 동편을 마주하는 서쪽 벽면(facade)에 설치하였는데 고딕성당인 경우 서쪽 벽면 중앙부위에 대형 장미창(rose window)을 설치하고 그 주변을 이스라엘 왕들의 조각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양쪽 에는 탑을 세워 ‘하나는 마을의 종, 하나는 교회의 종’¹⁴⁾으로 사용하였다. 세 개의 출입문은 사도들과 지역의 교부들, 그리고 기타 고위 성직자들의 조상(彫像)으로 장식하여 기념하였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건물 벽체는 최근 투명한 유리벽을 이용하지만 오랜 기간 두텁고 강건한 물질을 사용한 불투명한 돌 벽으로 구성하여왔다. 그것은 세속적인 외부와의 차단이자 성스러운 공간의 경계이며 이를 보호해야 했기에 무너져서는 안 될 굳건한 벽이어야 했으며 그 벽은 보호이자 감금이며 동시에 금기이

10) William Lethaby, *Architecture Mysticism & Myth* (Broughton: SOLOS Press, 1994), ‘The Golden Gate of the Sun’ pp.146-167을 참조할 것.

11) “야훼 집에 가지할 때, 나는 몹시도 기뻐다. 우리는 벌써왔다, 예루살렘아, 네 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시편 122:1-2)

12) AD 70년경 로마 제국 베스파시안(Vespasian) 황제의 아들인 디도(Titus)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불태운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와서 승리의 개선행진을 벌였다.

13) William Lethaby, op. cit, 앞의 책, p.63.

14) Darby Wood Betts, “Architectural Style”, Darby Wood Betts (ed.), *Architecture and the Church: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Joint Commission on Architecture and the Allied Arts* (Greenwich: The Seabury press, 1952), p.21.

기도 했다.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자는 권력자이다. 열쇠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람은 자신이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지 감금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늠한다.¹⁵⁾ 문은 벽의 부분이며 동시에 독립된 매체이기도 하다. 1517년 루터(M. Luther)가 95개 조항을 매단 곳도 교회 문이었다.¹⁶⁾ 문을 통해 외부와, 그리고 내부와의 다양한 소통의 욕망을 해소함으로써 문은 벽의 기능을 해체한다. 동시에 ‘문은 장식됨으로써 문의 존재를 잊게 한다’.¹⁷⁾ 건물의 문은 벽체의 부분으로서 내부를 규정하고 공간을 보호하지만 문이 소멸되거나 파손되면 그것은 뚫린 벽일 뿐이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를 침범할 때 출입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종교건물의 문을 태우기도 한다.

문의 형태는 사람이 드나들고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수직적인 형태를 취한다. 개선문처럼 기념과 장식, 그리고 경계점이나 지표 기능을 위한 공공의 문은 연결된 벽체 없이도 독립된 문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한다. 현대 교회는 교회건물의 외관과 내부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미적인 문을 설치한다.

한편 문은 건물에 들어오는 자들에 대한 친절과 환영의 표지이며, 방향을 알리는 안내 표지이다. 백화점이나 레스토랑의 문은 주변 건물들의 문과 차별하여 화려하고 위엄 있게 장식함으로써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환대를 받고 있다거나 특정한 자들만 출입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의도하여 구축한다. 이러한 개념은 현대교회의 문까지 적용되어 선택받은 자만이 이 문을 출입할 수 있다고 하거나 이 문을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로 선택을 받게 된다는 암시를 한다. 교회 문이 활짝 열렸을 때와 굳게 닫혀있는 육중한 문을 볼 때의 경험은 다르고, 철문과 목문이 다르며 중세 고딕교회 문과 현대 교회의 유리문에 대한 체험이 다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마태오 7:13)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요한 10:7),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 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요한 10:9)는 성서구절은 교회의 본당 대문(porch)에 구원의 문이라는 ‘좁은 문’ 개념과, 환영과 파송 이라는 ‘큰 문’ 이라는 두 가지 문 개념에 성서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15) 푸코 (Michel Paul Foucault)의 저서들을 참조할 것.

16) 루터(M. Luther)는 1515년 로마서 강해도중 하느님 공의의 진리를 터득한 감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마치 내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17) Evelyne Pere-Christin, 김진화 역, 『벽』(서울: 눌와, 2007), 148 쪽.

IV. 성서의 문

1. 베델(Bethel)

구약성서에 문에 관한 기록 중에서¹⁸⁾ 창세기 28장 17절을 인용해본다.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유대교의 신학적 해석에 앞서서 종교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적당한 구절이다.¹⁹⁾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외친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門)이로구나.”(이하 공동번역성서 개정판) 그리고 야곱은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다. 석상은 형상적인 문이 아니라 성스러운 장소와 공간이며,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의미 있는 자리의 표지이며, 그 자리를 기억하려는 의도적인 시각적 기념물이다. 여기에는 장소와 공간을 경계 짓는 물리적인 문과 벽은 없지만 이 석상은 야곱이 꿈을 꾸었던 성스러운 장소와 그 외부의 세속적인 장소를 구획한다. 석상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곳이며, 외부와 내부를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집이면서 동시에 외부와 내부가 소통하는 문이기도 하다. 이 석상은 피라미드(pyramid)이며 지구라트(ziggurat)이며 사원이며 교회이다.

2. 구원의 문 (좁은 문)

신약성서에도 구약성서처럼 문에 관한 구절이 종종 나오는데²⁰⁾ 그 중 마태복음 7장 13~14절,²¹⁾ 혹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은 ‘구원의 문’이 얼마나 좁은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 문은 사람들이 목표한 것을 성취해야 할 욕망을 충족해가는 과정의 난관을 비유하여 흔히 사용하는 취업의 문, 진학의 문과 유사하지만 세속적이며 반윤리적인 악마로 부터의 유혹을 뿌리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생명의 문’으로서²²⁾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중세교회와 비잔틴 교회시기부터 ‘교회 현관에서 내부 제대에 이르는 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의 일생’을 상징해왔다.²³⁾

18) 이사야 26:20, 말라기 1:10, 즈가리야 11:1, 시편 24:7,9, 78:23, 84:10, 이사야 45:1-3.

19) 기독교 교회의 건축은 신약 이후이므로 ‘신약의 문’에서 다룬다.

20) 요한계시록 3:8, 4:1, 3:20, 마태 25:10-12, 요한 10:1, 2, 9.

21)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의 문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공동번역 개정판)

22)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초대 사막교부들과 성 안토니오의 신앙심,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은 알리사의 현세적인 욕구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겪는 고뇌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V. 교회의 문

1. 시구문(屍軀門)

교회로 들어서는 첫 외부 경계는 영국교회의 경우, 리치 게이트(lych-gate)²⁴⁾로부터 시작한다. 이 이름을 직역하면 ‘지붕이 있는 시구문(corpsse-gate)’인데 불교 가람(伽藍)의 일주문(一柱門)처럼 교회 경내로 진입하는 첫 문이다. 이 문에는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고 그 내부는 걸터앉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시신을 들고 온 사람들이 쉬고, 사제(목사)는 이 문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시신을 받으며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장례 예식을 집전한다. 예식 후에 시신은 교회의 경내(churchyard)에 묻히기도 했다. 또 이 문은 살아있는 자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기도 하다. 교회의 첫 문이 시구문인 것은 교회의 여러 기능 중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상징적 의미로서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여러 사명 중에 가장 첫 사명은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2. 구원의 문

건축가 쉘츠(C.N. Schulz)는 교회 외관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 바실리카에서 입구는 세속적인 외부와 신성한 내부사이의 대조(contrast)를 표현하듯 작고 점잖았다. 중세성당에서, 그것은 세계에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거대해지고 투명(transparent)해졌다.”²⁵⁾ 여기에서 ‘세계에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라는 의미는 기독교 시대였던 중세의 정신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였으며 교회 문의 변화는 곧 교회론이 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문은 단지 성곽속을 구분하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중세에 와서 교회의 문은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도성을 보여주고 그 문은 이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도구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회 문에 관한 원형은 시편 122편 1-4절을 들 수 있다. 주교(主教)는 교회건물을 축성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 서기 직전에 본당 문 앞에서 주교성장²⁶⁾(聖杖, crosier)을 들어 밑 부분으로 문의 중앙을 세 번 때리며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을 한다.²⁷⁾ 교회는 하나

23) Peter and Linda Murry, *The Oxford Companion to Christian Art and Archite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343.

24) 이 문은 주로 17세기 초 이후 영국의 지역교회(parish church)에 설치되었다.

25) C.N. 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이재훈 역, 『거주의 개념: 구상적 건축을 향하여』(서울: 태림문화사, 1995), 81쪽.

26) 주교가 사용하는 목자 지팡이로서 주교의 지도력과 목회(사목)의 권위를 상징한다.

27) 성당 축성 때 주교는 “성당외부에 성수를 뿌린 후 성당 문 앞에 서서 성장으로 문을 세 번 두드리며

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사를 거행하는 장소로 성별되고(성공회),²⁸⁾ 가톨릭교회는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기 위한 집’으로 성별된다.²⁹⁾ 이것이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들의 오늘날의 교회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이 성스러움으로 구분되고 보호받는 물리적 표지는 교회의 벽체지만 성별된 공간이 세속과 소통하는 통로는 교회 문인 것이다. 교회의 본당 문을 들어선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중세의 교회 본당 문은 육중했다. 본당의 가장 큰 기능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지만 도망자들의 피난처며 은신처이기도 했다.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교회 출입문은 육중하고 시건(key)장치가 있었다. 제단이 도상학적으로 동쪽에 위치한 관계로 신자들은 남문이나 서문을 이용했다.

제단에서 바로 보이는 서문이 대문인데 평소에는 닫혀있지만 주일 대 예배나 장례예식, 결혼예식과 같은 중요하거나 큰 의식이 있을 때만 열고 사람들은 평소 서문(west gate)인 대문 가까이 현관(porch)에 있는 작은 남문을 이용했다. 간혹 남문과 같은 모양과 크기로 남문과 마주하는 북문을 낸 경우가 있는데 그 문을 ‘악마의 문’³⁰⁾이라고도 불렀다. 영국의 링컨 대성당의 문은 ‘천국의 문’으로서 입구 파사드 중앙에 큰문을, 그 중앙 문의 좌우에 ‘좁은 문’을 설치하여 성서의 두 내용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중세의 썬 드니(Saint-Denis) 수도원장 이던 슈제(Abbot Suger, 1140)는 썬 드니 성당의 서쪽 벽 출입문을 시(市)로 들어가는 대문으로 상정했으며³¹⁾ 르네상스기의 건축가 알베르티(Alberti)는 교회 문을 로마의 개선문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예배자들은 교회 문을 통해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³²⁾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요한10:9). 이 문은 ‘그리스도’이며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생의 문이며,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대한성공회 공도문 개정전문위원회, 『성공회 기도서 2004』(서울: 대한성공회 출판부, 2004), 419쪽.; 이 구절을 인용한 시편 24장 7절에는 ‘영생의 문이며 활짝 열려라’가 아니라 ‘오래된 문들이 일어서라’이다. 기도서는 위 시편을 성당 축성에 적절하게 개작한 것이다; 주교가 이 예식을 진행하며 성당 안으로 순행하는 동안 신자들은 시편 122편을 교독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님 집을 가자할 때, 나는 몹시도 기뻐다. 2. 우리는 벌써왔다 예루살렘아, 네 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28) 대한성공회 공도문 개정전문위원회, 위의 책, 419쪽, ‘성당 순행식 예문’; 이것은 성공회의 교회본당의 기본개념이다.

29) 가톨릭교회는 성당축성예식서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인 이 집은 지상 여정에 있는 특수표지요 천상교회의 모상이다.……하느님 백성이 모여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기 위한 집…….”으로 규정하여 성공회의 교회 본당에 대한 개념과 다르지 않다.; 김종수, 『성당건축과 전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3), 16 쪽.

30) 어린이가 영세를 받을 때 아이 안에 잠재해있는 악령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북문을 열어놓았다; J. P. Hunt, *What to look for outside a church* (Loughborough: Wills & Hepworth Ltd., 1972), p. 36.

31) Otto von Simson, *The Gothic Cathedral* (New York: Pantheon Books, 1962), pp. 108-9.

32) R. Wittkower, *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London: Alec Tiranti, 1962), pp. 37-38.

중세 서양의 교회 본당 출입문 위에 얹힌 상인방(上引枋, Linteau)을 그리스도로 장식하거나 그 위의 тимпан(Tympanum)은 최후의 심판 같은 내용을 부조(浮彫)하였다. 성당 문의 최후의 심판과 같은 부조 조각을 통해 성서내용을 교육도 했지만 ‘이로 인해 문은 더 엄숙해졌으며 격조 있게 되었다.’³³⁾ 이 문은 광장이나 길에 접해 있는데 이 광장과 길은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의 미로이기도 하다. 미로는 길이면서 동시에 방향성이 없기에 길이 아니다. 교회는 이 미로에서 구원을 향해 가는 지표이며 쉼터이다. 사람들은 이 문(그리스도)은 ‘길’이며 이 길을 통해서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문은 다른 문과 다르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지만 이교도(異教徒)를 배척하고 방어하는 문이며, 무서운 심판의 문이며, 한편 보호의 문이며, 동시에 세속과 천상을 연결하며 화해하는 문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본당 문은 ‘구원과 환영과 파송’이라는 성서의 기본적인 개념에, 문을 통한 다양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들어옴’이라는 ‘참여’를 통해 이들이 하나 되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³⁴⁾ 과거의 도시 자체가 성스러운 장소이며 교회였듯이 교회는 그 자체로서 세상과 통하는 문인 것이다.

3. 왕의 문, 영광의 문

동방교회(Orthodox Church)는 성당 내부공간을 제단과 회중석을 분절(分節)하는 성화(聖畵)로 장식된 장막(Iconostasis)³⁵⁾을 세우고 여기에 세 개의 문을 내어 성서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그 중요도에 따라 그들의 아이콘의 위치를 정하고 설치한다. 중앙의 문은 ‘왕의 문(Royal Door)’이라고 하여 제단으로 연결되는 문으로 오직 사제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며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상징한다. 이 문 위에는 예수의 사도들과의 최후의 만찬 성화가 위치한다. 회중석에서 볼 때 왼쪽 문은 북문(north door)으로 제대로 연결되며 오른쪽은 남문(south door)으로 부제(副祭)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데살로니카의 성 시메온(St. Simeon of Thessalonica)은 ‘현관(narthex)은 지상(earth)과 교통하며, 교회는 천국으로 향하고 지성소(제단)는 천국 위를 향 한다.’³⁶⁾고 설명했다.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처럼 회중석에서 제단을 투시할 수 없도록 막은 장막은 없지만 동

33) 임영방, 『중세미술과 도상』(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86쪽.

34) Marchita Mauck, *Shaping a House for the Church* (Chicago: Liturgy Training Publications, 1990), p. 40.

35) iconostasis 가 설치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초대 비잔틴교회부터 시작되어 16세기 중엽에는 성인들의 아이콘의 위치가 더 세밀하게 정립되었다. iconostasis는 비단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축소하여 접이식 개인 기도용으로도 생산되었다.; Leonid Ouspensky and Vladimir Lossky, *The Meaning of Icons*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83), p.60. 여기에 설치되는 신구약 성인들의 배치 구도와 이에 관한 도상 해석들은 이 책을 참고할 것.

36) 위의 책, pp.60-66.

방교회의 Iconostasis가 위치하는 바닥에 레일(rood screen)과 천장을 연결하는 아치(arch)를 부착하여 회중석과 개방된 문(chancel arch)을 설치한다. 회중석에서 제단에 이르는 중앙통로를 ‘구원의 길’이라 명하고 제단이 시작되는 곳에 설치한 문을 ‘승리의 문(영광의 문)’으로 상징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 하는 제단이 곧 골고다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써 승리한 것을 상징한다.

VI. 응답의 문 – 현대 교회의 문

현대교회의 양태는 도상적인 유럽의 중세기 교회건축과 다르게 매우 다양하다. 중세교회의 는 대체로 그 지역의 산물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건축재료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재료를 용이하게 구입하여 사용한다. 상가 임대교회부터 시작하여 대형교회에 이르기 까지 그 교회규모와 건축양식, 재료, 공간구성도 다양하다. 특히 대형교회는 한 교회 터에 복합 기능건물들을 축조하고 ‘센터(center)’라 명명하고 예배공간으로서의 교회는 단순히 ‘채플(chapel)’로서 센터 구성의 일부일 뿐이다. 채플의 문의 재료도 개발된 다양한 건축재료 만큼이나 다양하여 나무는 물론 동, 철, 알루미늄, 유리와 같은 재료를 거침없이 사용한다. 교회론을 기초로 하여 교회문의 크기와 재료를 산정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측면에서 합당하지만 그렇다고 본당의 규모와 건축재료, 색깔에 조화롭지 못한 문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한 가지 성서구절을 인용하여 본당과 어울리지 않게 작은 문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사회와 정서와 무관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개념으로 키치적이며 호화롭게 문을 장식하는 경우, 문에만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지양해야 한다. 문, 특히 교회 문의 상징성과 그 의미,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시각적인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한번 쯤 누구나 들어가 보고 싶은 문이어야 한다. 현대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과 그리고 위기에 처한 세상의 고통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응답’³⁷⁾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문은 중세적이며 도상학적인 교회 문의 개념 – 천국의 문, 좁은 문, 승리의 문, 왕의 문 – 을 극복한 ‘응답의 문’으로서 실천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여야만 한다.

37) Richard Giles, *Re-Pitching the Tent: The Definitive Guide to Re-ordering Church Buildings for Worship and Mission* (Norwich: The Canterbury Press, 1996), p.84.

VII. 문 닫기

교회문은 성과 속의 구획이면서 소통할 수 있는 성과 속의 ‘사이’이며 문지방처럼 외부이자 동시에 내부이다. 문은 본 건물과 독립된 그 자체로써 텃밭과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매체이며, 형태와 재료, 색깔과 크기에 따라 본당과 무관한 독립된 매체이기도 하다.

텃밭의 ‘최후의 심판’과 더불어 중세교회의 육중한 문은 문맹하며 소심한 시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불신앙과 죄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기에 충분했다. 오늘 현대교회의 문을 디자인할 때 서양 중세교회의 문처럼 전통적이며 도상학적인 의미를 충실히 재현해 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중세 교회 문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교회의 본질은 불변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나라와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회론은 새롭게 변화하고 생성해 가야하는 것이며 지역의 상황마다 교회론은 다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회건축의 모양새와 공간구성도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현대교회의 문은 중세기 교회론에 따라 설치된 고딕성당의 육중한 문이기 보다는 본당 건물과 조화해야하며 주변에 위화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모으고 누구나 편히 들어와 영적 호기심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문, 자신의 혼탁한 영혼을 정화하며 영적 욕망을 충족해줄 것 같은 문, 이 문을 나서면 측은지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측은지심의 문이면 좋을 것이다. 교회 내부의 다양한 문의 기능과 성격에 관계없이 교회의 외문은 피난을 위해 내부에 들어와 있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우 외에는 의도적으로 잠가서는 안 된다. 이렇듯 교회론은 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리고 각 종교는 전통적으로 저 마다의 독특한 문의 형태를 구축해 왔다. 어느 종교건축물이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출입하게 되는 문의 체험을 통해 그 종교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된다.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해 비단 교회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종교건축물에서 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중수. 『성당건축과 전례』.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3.
- 대한성공회 공도문 개정전문위원회. 『성공회 기도서 2004』. 서울: 대한성공회 출판부. 2004.
- 임영방. 『중세미술과 도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Aries, Philippe. 고선일 옮김. 『죽음 앞의 인간』. 서울: 새물결. 2004.
- Betts, Darby Wood. “Architectural Style”. Darby Wood Betts ed., *Architecture and the Church: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Joint Commission on Architecture and the Allied Arts*. Greenwich: The Seabury press. 1952.
- Brown, Peter. *The Cult of the Saints: Its Rise and Function in Latin Christian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Eliade, Mircea. Trask, Willard(trans).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9.
- Eliade, Mircea.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 박규태 옮김, 『상징, 신성, 예술』. 서울: 서광사. 1991.
- Giles, Richard. *Re-Pitching the Tent: The Definitive Guide to Re-ordering Church Buildings for Worship and Mission*. Norwich: The Canterbury Press. 1996.
- Gilloch, Graeme. *Myth & Metropolis*. 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서울: 효형출판. 2005.
- Hunt, J. P.. *What to Look for Outside a Church*. Loughborough: Wills & Hepworth Ltd.. 1972.
- Lethaby, William. *Architecture Mysticism & Myth*. Broughton ifford: Solos Press. 1994.
- Marc, Olivier. *Psychology of the House*. London: Thames and Hudson, 1977.
- Mauck, Marchita. *Shaping a House for the Church*. Chicago: Liturgy Training Publications. 1990.
- Murry, Peter and Linda. *The Oxford Companion to Christian Art and Architec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Ouspensky, Leonid and Lossky, Vladimir. *The Meaning of Icons*. New York: St. Vladimir's Seminay Press. 1983.
- Pere-Christin, Evelyne. 김진화 역. 『벽』. 서울: 놀와. 2007.
- Rasmussen, Steen Eiler. *Experiencing Archite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1995.
- Schulz, C. N.. *The Concept of Dwelling: On the Way to Figurative Architecture*. 이재훈 역. 『거주의 개념: 구상적 건축을 향하여』. 서울: 태림문화사. 1995.
- Shannon, Kelly. “Place as Resistance: Landscape Urbanism in Europe”, Charles Waldheim ed.,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켈리 새넌, “저항으로서의 장소: 유럽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김영민 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8.
- Von Simson, Otto. *The Gothic Cathedral*. New York: Pantheon Books. 1962.
- Wittkower, R.. *Architectural Principles in the Age of Humanism*. London: Alec Tiranti 1962.

원고접수: 2010년 11월 15일 1차심사: 12월 3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소개: 이정구

① 전공: 교회사, 문화신학 / 소속: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관심영역: 건축사, 미술사

③ 주요논저: 『한국교회건축과 기독교미술탐사』

④ E-mail: jkl@skhu.ac.kr

Abstract

A Theological Concept about Church Door

Lee, Jeongku

Sungkonghoe University

The door of the Christian church is a division between sacredness and profanity. At the same time, it is a middle in between to communicate. It is also a threshold linking an external and an internal world. The imposing-looking door of the medieval times was designed to bring a feeling of awe for the church and God into illiterate believers and unbelievers, which contributed to their reflecting on their sins. When designing a contemporary church door, it is pointless and nonsensical to faithfully reproduce the traditional medieval iconography of the medieval church door. It might sound reasonable to take the size and materials of church doors into account for the sake of the doctrine of the church, but their size and materials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whole church building. The concept of the contemporary church door should overcome the iconography of the medieval Western church door. Instead of the narrow door to heaven, the big door to welcome all to church, the door to success, and to the way to the Lord, it should be a door to answering. In other words, it should be a door to compassion.

In every sort of religious structures, people tend to form preconception of the religion from the door that they come across with for the first time. The door is such a significant factor in comprehension and education of religion.

Key words : church door, answer, compassion, comprehension and education of religion